

## Mathewson 성경 강의 3 이야기 - 선지자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의 줄거리에 관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여섯 번째 강의 중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그는 선지자들과 다섯 가지 주요 주제, 즉 땅, 언약, 성전, 하나님의 백성, 왕권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데이브 매튜슨 박사.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목적과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위해 쓰여진 다양한 유형의 책과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양한 책이 증명하는 기본 내러티브 또는 책을 통합하는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든 스토리라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문서 전체와 주요 움직임, 주요 주제 및 주요 목적이 책 중 이 이야기에 의존하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이 들어갈 백성을 창조하시는 곳입니다. 이 관계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견되는 언약 관계와 유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고 지켜야 할 땅, 즉 피조물을 은혜로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그분의 성소인 에덴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 전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가 그것에 실패하고 죄로 인해 아담과 이브가 땅에서 추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복원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 수단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모든 주요 주제는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로 땅을 주실 것이며, 또한 성전의 형태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한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든 창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할 다윗 왕을 통해 일어날 모든 창조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창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선지자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 몇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였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통해 추적한 다섯 가지 주요 주제와 실패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을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1과 2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주제, 즉 여러 주제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과 피조물, 성전, 동산, 처소 등이다. 하나님의 거처와 그의 백성과의 임재, 그리고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죄로 인해 인류는 그때부터 왕권을 오만하고, 자신들이 대표할 창조주를 무시함으로써 그 통치를 남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류의 죄로 인해 이제 왕국이 되고, 세상은 사탄과 악의 왕국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사탄의 통치와 인류가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오만하게 하는 방식에서 구출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구출하시고 그의 통치를 온 피조물 전체에 전파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피조물을 인류가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 위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계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의 영광이 널리 퍼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 피조물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되나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므로,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포로 생활의 상황을 넘어서는 회복의 전망을 분명히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성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를 예상했습니다. 복원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의 회복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수단이셨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피조물을 모두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모든 창조물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예언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서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문헌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예언서 하나하나를 모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문학의 주요 부분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 예언서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과, 창조에서 시작되는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엮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주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창조물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결국 모든 창조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언서 전반에 걸쳐 매우 분명한 내용이며, 이스라엘이 곧 포로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대부분의 예언서 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예언서에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흩어진 것으로 보이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 때문에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다시 모일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0장과 같은 본문은 포로 생활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빛과 그의 영광과 백성과 함께하시는 그의 임재라는 주제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3절, "열방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나라의 왕들이 네 위에 나오리라' 당신의 새벽의 밝기.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는 그들은 포로로 인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예루살렘으로 당신에게로 갑니다.

네 아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요, 네 딸은 유모의 품에 안겨 오리라.” 그리고 이사야 6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아 회복시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 제가 할 일은 단순히 여러 예언의 본문을 읽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단, 에스겔 36장과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복원과 지금까지 살펴본 진행 중인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보세요.

36장, 9장부터 11장.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한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가 경작하고 심길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것.

그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곳을 재건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보다 더 복을 베풀어 네게 거하게 하리라 ." 특히 10절과 11절에서 백성의 번성이라는 표현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려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여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이 생육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시키시며,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그의 원래 의도대로 그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수가 늘어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바로 다음 장인

37장에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백성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 하나님은 마른 뼈, 즉 죽은 뼈의 종류가 이제 모여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형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 37장의 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두 구절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르되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예언한 대로 갑자기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가 본 뼈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축복의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뼈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뼈와 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있고 살이 붙어 있으며 피부가 덮였으나 그 속에 호흡이 없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생명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서서 일어서니 큰 무리더라.” 허다한 무리와 큰 수라는 개념은 아마도 창세기 1장의 증가와 번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없는 몸에 생명을 붙어넣으시는 것을 주목하라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과 힘줄을 가졌으나 그들에게 생기를



주는 생기가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지만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한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통해 생명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창조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한 번 봅니다. 또 다른 예언 본문이나 또 다른 예언 본문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스가랴 8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7절과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성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스가랴는 또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도 언약이라는 주제와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회복에 대한 스가랴의 기대 중 일부는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언약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예언적 기대의 일부는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 생명을 얻게 되며 언약을 맺게 될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 제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예상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강의에서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주된 방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것이며, 언약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관계나 종주권 조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거나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관계와 창세기 1장과 2장을 언약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언약 관계의 모든 요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는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맺은 언약은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백성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여 에덴동산에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옛 언약처럼 실패하지 않을 새 언약을 다시 한 번 그의 백성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여러 예언서에서는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가랴 8장 8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발견되는 언약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 백성과 새 언약 관계를 세우실 때를 분명히 예상하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과 관련된 고전적인 본문입니다. 특히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다시 세우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곧 모세의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 공식을 주목하십시오.

더 이상 그들이 서로 가르치지 아니하며 아니니 주여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를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통해 그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예상하는 또 다른 본문은 언약이라는 단어의 언어가 다시 사용되지 않지만 언약의 언어가 여러 위치에 분명히 존재하며, 에스겔서는 역시 새 언약을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때입니다.

예 를 들어, 에스겔 34장 25절을 보면,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들짐승을 땅에서 쫓아내어 그 땅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생과 숲 속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세요. 그러나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언약에 대한 기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36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장 25절과 26절, 내가 다시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데리고 나가고 여러 나라 중에서 너희를 너희의 땅으로 모아서 너희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새 언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니 너희가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리라.

그리고 너희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리라. 그리고 나는 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37장 26절과 27절, 나의 처소가 그들 곧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 번 언약 공식에 주목하십시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라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재창조하시며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성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죄성을 처리하실 수단입니다. 인류에 대한 의도는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고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주요 수단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제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 주제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의 주제이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60장과 4절과 같은 말씀을 읽었고, 스가랴 8장에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라고 말했고, 그것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축복의 장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거나 함께 거주하실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의 귀환이 얼마나 자주 예언적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전에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4장에서 이러한 창조의 모티브를 반영하여 주목하시기 바라며, 예언서를 보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혼돈으로의 회귀, 즉 창조의 소멸, 말하자면 창세기 이전 1장 1절로의 회귀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4장과 23절부터 26절을 주목하고 그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생명이 없으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 소멸, 혼돈, 혼돈스러운 창조 이전 상태로의 복귀와의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23절, 내가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봐도 빛이 없고.

내가 산을 보니 낮은지라 산이 흔들리고 모든 언덕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갔더라.

내가 보니 기름진 땅이 사막이 되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황폐하였나니 그래서 다시, 언어, 즉 창조의 소멸 언어나 혼돈으로의

복귀, 에덴 이전 상태에 주목하세요. 열매가 없고, 하늘에 빛이 없고, 산이

흔들리고, 만물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기다리며 공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땅으로의 귀환은 종종 새로운 창조나 새로운 창조적 행위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1장과 제가 읽으려는 예언서의 모든 본문은

모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뿐만 아니라

에덴과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과 2절과 3절입니다. 1. 의를 추구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채석장을 바라보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부를 때에는 그는

단 한 사람이었으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 같게 하며 그 사막을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실 것임이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고 감사와 노래 소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회복은 에덴동산의 회복,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과 같은 상태로의 복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 모두의 성취로 간주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뿐 아니라 그가 수많은 조상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 땅에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시기 위해 에덴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땅 위에는 열매 맺는 곳이요 축복의 곳이다. 이스라엘의 땅으로의 귀환과 회복을 에덴과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즉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다른 구약성서의 본문도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 땅을 너무 자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하고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36장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타락, 혼돈 이 아닌 풍요로움과 물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언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론 그 물은 골짜기와 황폐한 곳과



황폐한 성읍들에 있으니, 그 곳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남은 이방인과 에돔 온 땅에 대하여 맹렬한 질투로 말하노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멸시함으로 내 땅 목초지를 빼앗아  
약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여 산들과 작은  
산들과 시냇물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능욕을 받았으므로 내가 노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능욕을 당하리라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뺏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열매 맺는 주제가 나오며,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곧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연결된다. 지금 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서면 너는 경작되고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인구를  
늘리겠다. 이스라엘 온 족속 곧 그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곳을  
재건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사람과 동물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증가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하여 이전보다 너희에게 더 많은 복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사람들을 네게로 인도하여 그들이 너를 차지하게 하고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될지라.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뒷부분.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읽어 보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언어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언약 공식. 30절, 두 구절 뒤에는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리라.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요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시는 열방 가운데서 기근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읽을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황무했던 땅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황폐해지지 않고 경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폐하던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마을의 황폐하고 황량한 곳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요새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언어는 이전에 죽음과 혼돈과 부패가 있었던 땅으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이제 에덴동산에서와 같이 풍요와 축복의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다른 예언서에도 아브라함이나 에덴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하여 땅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 다시 회복이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백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크게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 떼에게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리로다.

그들의 삶은 물 댄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시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에덴의 비유를 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본문과 그 외에도 더 많은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그 중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사야서 65장과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는 포로 생활을 넘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회복될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의 날을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회복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5장 17절부터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평행을 이룬 점에 유의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 이전 일은 기억되지도 아니하며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민족재창조, 민족복귀라는 주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시는 우는 소리도,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읽을 다음 두세 구절,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동산과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언어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며칠만 지나면 죽는 어린아이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평생을 못 사는 노인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저주의 일부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누구라도 죽고 누구누구도 죽고 누구누구는 이런 반복적인 후렴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없고, 평생을 못 사는 노인도 없을 것입니다. 백 세에 죽는 자는 청년이라 여기고 백 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로 여기리라.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에덴의 풍요로움을 회상합니다.

그들이 건축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심고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의 날은 나무의 날과 같으리라.

그리고 나의 선택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오랫동안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을 낳을 아이를 낳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 후손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의 때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그는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행위를 모델로 한 새로운 창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이 풍요의 때, 죽음의 저주를 반전시키는 때, 풍요의 때가 될 것이라는 에덴의 이미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의 날이 나무의 날과 같으니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은 실제로 생명나무의 날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인 창세기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 첫 번째 창조와 에덴동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시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과 에덴으로 돌아가는 연결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우주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수단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 라인을 이어가는 예언 문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배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백성을 회복하실 때를 예상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에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 행위, 즉 회복시킬 완전히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날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조건과 에덴동산의 조건, 즉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이제 에덴동산과 땅의 이미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나 정원이라는 주제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안식처로 여겨졌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을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인 성막과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는 성전과 에덴동산 사이에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성전은 일종의 에덴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스며드는 전체 우주를 포괄하려는 하나님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땅으로 돌아와 창조 조건과 에덴이 회복될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회복되거나 재건된 성전의 형태로 그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 8장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종종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의 공식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스가랴서 14장, 즉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를 표현하십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설명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대부분은 다소 자세한 설명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그 치수와 구성과 건축과 기능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 번 그의 백성과 함께 안식할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전에 대한 묘사와 측량,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성전에 대한 묘사는 분명히 이전의 묘사, 즉 열왕기상의 성전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출애굽기의 성막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또한 에덴동산,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신성한 공간 또는 성소로 돌아가는 명확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43장과 1절입니다. 이 부분의 의미 성전의 구성과 건축,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 성전의 모든 면과 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성소와 기구와 모든 것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전에 대한 설명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43장과 1절,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일종의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천상의 존재에 의한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 이동되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43장 1절부터 이런 환상의 여행에서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는 이 천사가 나를 그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문은 동쪽을 향한 문이었는데, 거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그 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2장까지에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묘사되었으므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성전 위에 머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도 그분의 성전에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의 성전에 거하며 안식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여기서 그가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에서 와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방향 표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 입구에서도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배치되었는데, 그 입구 곧 동쪽 입구에 두 그룹이 배치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동문 곧 동문을 통해 이르러 그의 성전에 거하시느니라. 분명히 이것은 에덴동산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도록 의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동쪽을 통해 그분의 성전에 거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성전 동쪽 입구에서 쫓겨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동산이나 성전이 에덴동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7장에서 이 환상적 성전 여행에서 에스겔을 인도한 천사 존재인 그는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성전 방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동쪽은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성전의 제단 남쪽 문지방 남쪽 끝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인 물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바깥 문으로 돌아서 바깥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물은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걸을 때, 그가 이 여행을 할 때, 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은 넓어져서 마침내 5절에서 그는 강을 건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절, 내가 돌아와서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곧 물이 고이는 바다에 이르면 그 물이 신선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떼 지어 사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이 그곳에 닿으면 많은 물고기가 생길 것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그것은 신선해지고 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덴과 같은 조건으로의 복귀를 주목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나무, 생명을 주는 물, 야생동물로 가득한 것은 분명히 에덴동산에 대한 기대와 반영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이 부분의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면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나무가 자랄 것이라.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은 온 피조물, 온 땅에 걸쳐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여겨진다. 성전의 회복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의 복귀와 에덴과 같은 상태로의 복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인 땅,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땅이요,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왕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통치 명령은 주로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확립하실 수단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끝없는 보좌는 회복된 다윗 왕조에 대한 나머지 모든 예언적 기대의 기초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흥미롭게도, 다윗이 집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은 비록 집을 지을 사람은 그의 조상일지라도 다윗의 조상이 집을 지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성전과 다윗 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잘. 이미 시편 2장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에서 다윗 왕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보편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에 걸쳐 동일하게 확장될 것이며 인류가 하나님의 악이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걸쳐 그분의 통치를 대표하고 전파하는 섭정.

이미 시편 2편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다윗 왕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땅에 회복하시고, 그의 성전을 세우시고,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여기에는 또한 분명히 다윗 왕의 재건이 포함되며,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회복하심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5장에 “보라 다들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기대에 비추어 현재의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위한 빵인가 노동인가?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으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귀를 기울여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을 위하여 한결같고 확실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온 땅에 인정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과 15절은 다시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33장과 15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맹세한 것을 응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에스겔 37장, 36장 37장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새 언약, 새 창조, 땅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37장과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삼가 지키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부섭정을 통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부섭정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다윗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는 다윗의 이 통치가 단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편적일 것이라는 단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2장에서 다윗이 땅 끝과 모든 나라를 그의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과 14절은 다니엘이 본 일종의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4절에서 다니엘은 우선 7장의 첫 부분에서 이 짐승들의 환상을 봅니다. 이 네 짐승은 각각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네 짐승의 형상에 대한 환상은 결국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나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네 짐승과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인에게 와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자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권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가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권이니라. 그분의 왕권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주제와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의 언약 약속과 공명하고 나중에 분명히 신약성서에서 다루어질 이 사람의 아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의 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약속, 즉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의 대표자로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로 다시 한 번 우주적인 통치권, 즉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그에게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과 영광과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아마도 그가 이제 이 네 짐승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아마도 들짐승과 창조물 짐승에 대한 아담의 지배권에 대한 창조 언어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은 예언서에 나오는 다윗과 관련된 통치, 왕권, 다스림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이제는 그것을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합니다. 스가랴 9장과 10장에서 우리는 또한 스가랴가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우주 통치에 대해 읽습니다., 겸손하고 당나귀와 당나귀의 새끼인 망아지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군마를 끊으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실 것이라. 그는 민족들에게 평화를 명령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에스겔 14장 9절도 마지막 장이 끝나고, 미안해요, 스가랴가 끝나고, 14장 9절, 끝납니다. 주님과 관련하여 온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곧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통치가 만물 전체에 전파되고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는 이제 사탄의 왕국이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들의 통치를 관개하고 참된 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조건을 회복하심으로써 부왕 다윗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실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언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이 모든 나라의 빛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 이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야기의 지속과 움직임의 일부로 시간을 예상했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성취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성취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풍요와 축복의 장소인 새 에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창조물 전체에 전파할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축복이 모든 나라에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 즉 이스라엘의 죄성 문제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다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 다윗 왕조가 그들을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에덴,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새 언약 관계 속에서 다시 성전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 그러면 모든 나라에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체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분의 백성과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남깁니다.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이 기대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회복된 백성의 모든 기대가 어떻게 그들의 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부섭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분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 전체에 확장하며, 그들 가운데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 기대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분은 줄거리의 결론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글쎄,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신약성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에 대한 다음 몇 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성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기대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Dave Mathewson 박사의 성경 이야기에 관한 6명의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